



GLP 및 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 안전성기술 선도적 역할 감당할 터

2008. 3. 호서대학교 특성화 사업일환 GLP 선정, 2010. 8. 본격적 업무 개시

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HTCR : Hoseo Toxicological Research Center, 센터장 : 강창수)는 EU의 REACH제도 대응과 국내 GLP기관의 국제화 필요성에 의해 2008년 3월 호서대학교의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GLP분야에 선정되고 그해 12월 지식경제부 국

책사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0년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8월부터 본격적인 안전성평가센터의 업무가 개시됐다.

안전성평가센터는 국내 유수의 특성화 연구소가 입주해 있기로 유명한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다. 정문을 지나 아늑한 산



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 전경

등성이에 세워진 연면적 7,500㎡에 달하는 현대식 3층건물은 GLP시험기관으로써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센터는 국제수준의 시험, 교육, 기업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및 One-stop 기업지원사업, 국제수준의 안전성·위해성 평가시험, GLP 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전문가 양성, GLP시험 data의 국제적 인지도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GLP조직은 김균 부센터장(GLP운영책임자)을 주축으로 일반독성팀, 유전독성팀, 독성병리팀, 환경화학·분석팀, 잔류화학·생태독성팀의 총 28명의 전문가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팀은 인체독성시험과 생태독성시험 및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시설시험, 연구기반 및 인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개소 이후 현재 10여개월만에 '인삼의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연구'와 '작물중 농약잔류특성연구', '농약잔류성시험' 등 30여개의 정부용역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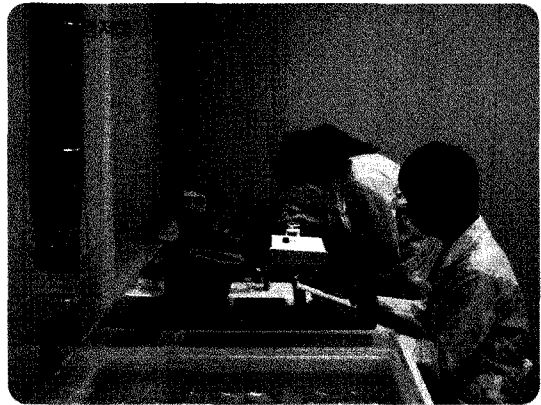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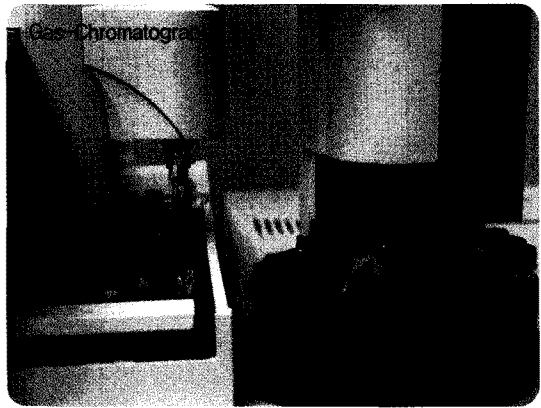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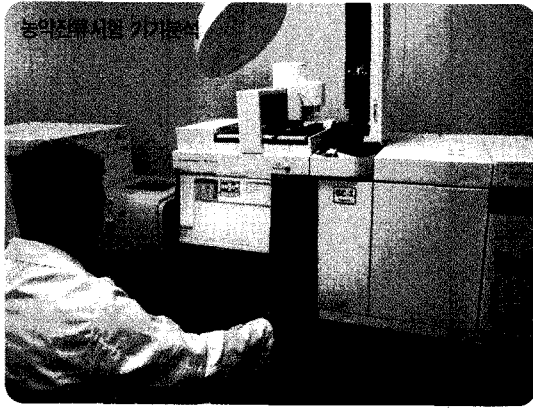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는 GLP사업과 연구개

발사업 공동수행으로 바이오융합 안전성기술 선도를 위한 GLP기반 구축과, 국내외GLP 인증획득, 나노바이오융합안전성연구, 신개념안전성 평가시스템의 상호 Synergy Effect 극대화를 위한 사업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안전성평가센터의 수행사업은 비단 GLP기준의 환경독성 및 비임상 안전성시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non-GLP 환경독성 및 비임상 안전성, 효능시험 용역 사업 및 각종 시험과 관련된 용역 및 연구사업도 운영위원회의 결정 아래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형 독성시험 연구개발 및 협력

업계 최고의 위해성평가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김균 부센터장은 GLP시험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GLP제도가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업계 등 관련 모든 종사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라며 "본 센터는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국내 시험기



관들이 부족한 분석과 동태 분야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라며 GLP인증기관의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위한 다짐을 표했다.

현재 안전성평가센터는 EU의 REACH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로 지경부 국제환경규제대응센터,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협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GLP 기관의 국제화에 힘쓰기 위해서는 선진 SOP, 보고서 등의 입수와 연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전달 교육 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리치기업지원센터, 한국정밀산업진흥회, 세이프케미칼,

Toxisan, 크로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MOU협정 체결 및 협력에 역점을 두어 기업지원에 필요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균 부센터장은 향후 GLP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안전성평가센터는 인체, 환경 독성시험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기관으로써 독성시험기관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독성시험법 개발 및 연구에도 병행 투자함으로써 독성관련 시험연구와 인력 양성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㉞

김 균 안전성평가센터 부센터장



국제표준 데이터 생성에 앞장설 터

■ 안전성평가센터의 설립계기와 현재 국내외 안전성 평가의 수급확대 전망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수요는 REACH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정책에 의해서도 대규모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해지고 있는 수질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새로 개발 또는 수입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을 지금의 6개 항목에서 REACH제도와 동일한 44개 항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REACH에 따른 수요를 크게 증가하는 상당한 규모의 화학물질 시험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시험기관의 양과 질적 증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국내화학기업의 피해가 우려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염려하고 많은 도움을 준 정부, 업계 및 학계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농산물 가격폭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먹거리 수급의 불안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농약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량생산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농약개발시 수많은 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소비자가 우려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유기농산물이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사업성과 및 올해 주요계획은?

최근에는 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총 4개분야의 GLP인증 획득함으로써 안전성평가센터의 출발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약제품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험에 대한 GLP인증을 획득하여, 업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입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업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통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듯이, 농약업계를 대표하는 안전성평가센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안전성-위해성 평가서비스를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